

## 중국 근대역사소설 《神州光復志演義》의 번역본 《滿漢演義》에 대한 연구

김 영\*

### <目次>

- |                          |                                 |
|--------------------------|---------------------------------|
| I. 서론                    | IV. 《神州光復志演義》의 국내<br>유입과 번역의 의미 |
| II. 한글번역본 《滿漢演義》의<br>소개  | V. 결론                           |
| III. 한글번역본 《滿漢演義》의<br>특징 |                                 |

### I. 서론

중국 근대역사소설 《神州光復志演義》는 중화민국 탄생을 기념하여 명말 李自成的 반란, 吳三桂의 입관 등 명나라의 멸망과 만주족인 누르하치에 의한 청나라 건국, 청말 辛亥革命을 거쳐 중화민국 수립까지 약 300년 동안의 역사적 사건들을 120회에 걸쳐 서술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12년에 출간된 이후 그 해에만 중국에서 4번이나 재출간될 정도로<sup>1)</sup>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대학 도서관, 민간 고서점, 개인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에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2)</sup>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연구전담조교수

1) 聽濤館主人 著, 鍾林斌·潘常靜 校點, 《神州光復志演義》〈前言〉, 春風文藝出版社, 1997, 3쪽 참조.

《神州光復志演義》의 神州는 중국을 뜻하며 중국 광복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책이 국내에 유입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다. 즉, 타국(중국) 민족의 광복투쟁사를 보여줌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처해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神州光復志演義》의 번역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수상신주광복지연의》(30권 30책)이 유일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홍(2007)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바 있다.<sup>3)</sup> 최근 《神州光復志演義》의 다른 번역본 1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1책으로 서명은 “滿漢演義”이며 원고지에 필사된 번역본이다. 새로 발견한 번역본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본에 없는 번역자의 서문이 있는데, 《神州光復志演義》 원전을 번역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神州光復志演義》의 새로운 번역본 《滿漢演義》에 대해 소개하고 자료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神州光復志演義》 번역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神州光復志演義》를 어떤 도서로 분류, 취급하였고 이 책의 독서층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神州光復志演義》 번역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석인본 《神州光復志演義》의 국내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세대학교 도서관,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등이다.

3) 이에 대해서는 이재홍, 〈한글번역필사본 《수상신주광복지연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집》 42,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박재연·이상덕·이재홍 교수, 《수상신주광복지연의》(上下), 학고방, 2007 참조. 이재홍(2007)의 논문은 《神州光復志演義》 번역본에 관한 유일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원전 《神州光復志演義》의 개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글번역본 《수상신주광복지연의》의 서지사항과 번역 및 어휘 특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 II. 한글번역본 《滿漢演義》의 소개

현재 전하는 《神州光復志演義》의 한글번역본은 2종이다.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30책 완질의 《수상신주광복지연의》이고<sup>4)</sup>, 다른 하나는 새로 확인된 《滿漢演義》(낙질, 1책)이다. 《滿漢演義》는 현재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sup>5)</sup>



- 4) 이재홍(2007)은 매 권 본문 첫 면 하단에 ‘曹石’과 ‘趙東潤’ 두 사람의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고 소장자를 두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확인 결과 ‘惠石’을 ‘曹石’으로 잘못 판독하여 생겨난 오류임을 발견하였다. 즉, 소장자는 한 사람이다. 조동윤(1871~1923)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豊壤, 호는 惠石이다. 1887년(고종 24) 과거에 급제한 이후 검열·설서·응교·총어영군사마(摠禦營軍司馬)·동부승지·대사성·형조참의·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한일합병을 위한 친일파로 활동했으며, 친일 단체 일진회에도 가입했다. 1910년에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1912년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서화에 뛰어났고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이 책에 찍힌 인장은 현존하는 조동윤의 필묵란, 묵란도에 찍힌 인장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책의 소장자는 조동윤이고, 대략적 필사 시기는 1912년부터 192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화 17년(1942) 8월 25일이 명사된 조선총독부도서관 인장이 찍혀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동윤 사후에 조선총독부로 흘러들어간 듯하다.
- 5) 이 책은 2016년 6월 제38회 화봉현장경매를 통해 구입하였다.

책의 크기는 가로 17.2cm, 세로 23.9cm이다. 표지에는 ‘滿漢演義’라 쓰여 있다. 이 책은 한지가 아닌 인쇄된 원고지에 붓글씨로 쓴 원고본이다. 원고지는 세로 24칸, 가로 10칸으로 이루어진 240자 원고지이다. 본문 앞에는 ‘만한연의 서’와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목록은 제1회부터 제16회까지의 회목이 적혀 있다. 서문 2면, 목록 4면, 본문 363면 도합 369면이다.

필사자는 한 사람이다. 잘못 쓴 부분은 해당 글자를 붓으로 긋고 우측에 수정하였고 빠진 부분은 끼워넣기 표시를 하고 보충할 글자를 적어놓았다. 매 페이지에 수정 흔적이 있으며 적게는 한두 군데에서 많게는 스무 군데까지 이른다.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 것도 있지만 표기법을 바꾸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교체하거나 조사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주를 이룬다.<sup>6)</sup> 원고지를 사용하였지만 고어로 표기하였고 띄어쓰기도 없다. 일부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명사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sup>7)</sup> 하나하나 꼼꼼히 고쳐 적은 형태로 보아 정식으로 유통되기 전의 초고본 성격이 강한데, 구활자본으로 출판하기 전의 원고본이 아닐까 추정된다.

특이하게도 원작 《神州光復志演義》의 서명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처럼 그대로 한글로 옮기지 않고 《滿漢演義》라고 바꾸어 명명하였다. 주요 줄거리는 이민족인 滿洲族이 漢族이 지배하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건국하여 나라를 지배하지만, 孫文을 중심으로 한 신해혁명이 일어나 淸 정부를 무너뜨리고 漢族의 중화민국을 건립하는 300년 동안의 투쟁과 전쟁이야기이다. 한족과 외세 이민족 만주족의 갈등과 전쟁 이야기이므로 만주족의 ‘滿’자와 한족의 ‘漢’자를 가져와 ‘演義’를 붙인 것이다.

또한, 원전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사실상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 6) ‘죽일진딧’를 ‘죽일진대’로 ‘딧접헛딧’를 ‘딧접흠애’로 ‘원컨딧’를 ‘원컨대’로 ‘서울’을 ‘경스’로 ‘긋치’를 ‘흠쩍’로 ‘그 잇튼날’을 ‘익일에’로 ‘걱정’을 ‘근심’으로 ‘함락헛였다’를 ‘함몰헛였다’로, ‘흠수업다’를 ‘흠 길이 업다’ 등으로 고쳐 적었다.
- 7) 장백산(長白山), 불고륜(佛庫倫), 은고륜(恩古倫), 정고륜(正古倫), 포고리산(布庫里山), 건주부추장(建州部酋長), 건주위도독(建州衛都督), 핑가첩목아(猛可帖木兒) 등이다.

강제로 편입된 강점기였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재하였는데 서적 출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애국계몽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신문, 잡지들을 강제로 폐간시키고 구한말 저술한 교과서와 애국계몽서적들도 소위 ‘禁書’로 분류하여 몰수하고 판매 금지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원전 서명의 ‘光復’이라는 두 글자를 그대로 노출하여 번역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파장 효과를 고려하여 ‘삼국지연의’, ‘서한연의’, ‘동한연의’, ‘남송연의’, ‘북송연의’ 등과 같이 여타 역사소설의 한 범주로 인식될 수 있도록 ‘滿漢演義’로 수정한 것이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번역자가 작품에 대한 소회와 이 책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유를 적은 서문이 있다는 점이다.<sup>8)</sup>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주광복지연의》에는 서문 자체가 없으며 원전 《神州光復志演義》에 수록된 글과도 완전히 다르다.

비록 원작 《神州光復志演義》의 120회 중에서 16회까지만 번역된 1책만 남아 있는 결본이지만 서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번역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유의미한 자료라 할 것이다.<sup>9)</sup>

### Ⅲ. 한글번역본 《滿漢演義》의 특징

#### 1. 서문의 존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滿漢演義》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서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문은 작품 첫머리에 책에 관계된 내용이나 집필 목적을 적은 머리말로, 원전 《神州光復志演義》에는 작자의

8)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9) 책의 표지에 ‘—’이라는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전체가 번역되었다면 대략 7~8권 정도의 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인들이 써준 서문이 7편이 들어 있다.<sup>10)</sup>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글필사본 《신주광복지연의》에는 서문 자체가 없다.

아래 단락의 인용문은 번역자가 직접 쓴 것으로 판단되는 서문이다.

만한연의 서

숯하다 꿈 갓흔 호탕대접 우주 만국의 흥폐존망이 그 몇 번인가. 지어지나의 명칭 량조하야는 더욱 감기흠을 익이지 못하리로다. 명의 숭정대는 어진 덕이 잇스되 그 신해 용렬하야 마춤닉 댁산 새벽 들에 녀이 날앗스니 이것슬 가히 괴수라 할가.

청의 태조와 태종과 세조는 어진 덕이 잇슴을 듯지 못하얏스되 다만 부하 장수와 팔기병의 웅망함으로 지나 한관을 통일하얏스니 이 또한 괴수라 할가.

반벽강산 금릉과 전당에 스가법 좌량옥 무리의 충성과 용맹으로도 한낫 흥광의 용우흠을 인하야 한 조각 썩러진 쌍도 능히 보전치 못하얏스니 이 또한 괴수라 할가.

풍운이 흔적 업시 움죽이고 흥망이 뜻맞게 맞괴여 영원흔 강자와 썩스지 약자가 업스니 이 또한 괴수라 할가.

대대 억천만겁이 모다 썩시오 우주도 썩시오 만국도 썩이니 만한 풍진은 특히 한 작은 썩이라. 임의 썩일진디 날고 넘어지는 즘음에 무엇슬 특별히 깃버하고 슬허하리오마는 이 말하고 이 일하는 우리도 또한 썩 속에 썩꾸는 재니 강인히 썩 체하고 스스로 놓히 처하고즈 하나 잇을가 보냐. 내 이에 이 글을 적어 터[턴]하 마음 잇는 이에 보이노라.<sup>11)</sup>

번역자가 써내려간 첫마디는 ‘슬프다!’이다. 이 한 마디는 번역자의 소회와 처해진 상황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거기에 주권이 상실된 슬

10) 7명의 대부분은 신해혁명에 참여했던 군인들이다. 이들이 쓴 서문의 내용 대부분은 당신 자신들의 혁명 활동 업적이나 소회, 《신주광복지연의》의 출판을 기념하는 축하와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聽濤館主人著, 鍾林斌·潘常靜 校點, 《神州光復志演義》上(中國近代珍稀本小說 19), 春風文藝出版社, 1997 참조.

11) 원전 그대로 입력하되 띄어쓰기만 현행 표기에 맞추었다.

품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어서 번역자는 중국의 왕조 교체를 예로 들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진 이유를 단순히 운명이나 운수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명나라의 숭정황제는 신하 대신들의 무능함으로 나라가 멸망하였고,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는 덕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고 유능한 부하 장수들의 덕택으로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는 것이니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여지를 남긴다. 타국(중국)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비록 조선이 뜻하지 않게 일본이라는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의연하게 버티고 견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국권을 상실한 비통한 분위기를 중국이 겪은 굴곡 많은 투쟁 이야기인 《神州光復志演義》에 대비시켜 조선 국민의 민족애를 고취시키고 계몽시키고자 하는 작은 손짓도 드러난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번역자의 의지가 담담하고도 잔잔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띠어 직접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 처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굳건하게 견디어 해쳐나가자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민족적 역사관의 반영

《滿漢演義》의 번역자는 우리나라의 역사 시작인 고조선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소양과 민족적 역사관을 지닌 지식인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을 원전 《神州光復志演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주광복지연의》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디로 말하건던 산하관과 료양 동편과 기원과 털령 북편에 잇는 흑룡강 길림 봉턴 삼성 지방은 본릭 조선의 넷 사이오 뒤에는 부여의 후손 료와 금의 디경이라 윈나라이 지나 전국을 웅거홈에 료와 금의 토디를 병탄하엿더니 명나라 태죄 윈을 멀히고 전하야 신중에게 니르러 국제 점점 쇠흘에 흑룡강 남편에 금나라의 후에 녕고탑 디방을 웅거하야 점점 린방을 쳐 항복 밧고 황테라 칭하니 그 성은 이신각리오 일홈은 놀하치니 이는 곳 청나라 태조 고헩테라 그 시조의 일을 상고하건디 흠 괴이흐 일이 잇더라. <<滿漢演義 1ab>><sup>12)</sup>

② 자세이 말할 거시 업고 다만 말하건디 산하관 요양 씨 동녕과 기원 철녕씨 북녕에 저 흑룡강 길림 봉턴 삼성 지방이 근본 송나라 시덕에 요 금 옛 쓰이라. 윈나라이 텃하를 도적하여 웅거하미 요·금에 불췌이 비로소 식어더니 명 티조가 윈나라를 멀히고 한나라를 회복후 후 전하야 신중에게 이르러 국제가 점: 쇠흘 저 흑룡강 씨 남편에 금나라 오랑키 즈손이 다시 쥬근 지를 불 붓치 영고탑 지방을 웅거하고 이웃 부락을 으울너 싱키고 문득 스오노운 결네가 되야 점: 참남흔 일홈을 제라 일컷고 우리 중국을 침범하니 문저 제를 일컫른 즈는 일홈이 노이합적이니 녀력이 강디하고 흥흥하기가 다른 쥬장보담 심하니 즈손이 티조라 일컷더라. 저의 윈조를 말하면 흠으로 흐 괴이흐 일이니 <<신쥬광복지연의 1:2>>

③ 單說山海關遼陽以東, 開原鐵嶺以北, 那黑龍江, 吉林, 奉天三省地方, 本宋時遼金舊土, 元胡竊據天下, 遼金之焰始息, 明太祖滅元復漢, 傳至神宗, 國勢漸衰, 那黑龍江以南, 有金胡子孫, 復然死灰, 盤踞寧古塔地方, 併吞鄰部, 便成悍族, 也漸漸僭號稱帝, 犯我中國. 首先稱帝者, 名奴爾哈赤, 生得膂力強大, 凶悍甚於他酋, 子孫稱他爲太祖. 說起他的遠祖, 真是一件奇事. <<神州光復志演義 第一回>>

문제가 되는 문장 ‘那黑龍江、吉林、奉天三省地方, 本宋時遼金舊土’는 ‘그 흑룡강, 길림, 봉천 세 지역은 본래 송나라 때 요나라 금나라의 옛 영토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신쥬광복지연의>>는 ‘저 흑룡강 길림 봉턴 삼성 지방이 근본 송나라 시덕에 요 금 옛 쓰이라’로 원전 그대

12) 원전은 앞뒤 두 면을 한 페이지로 보고 숫자를 명기하였다. 따라서 1ab의 a는 앞면을 b는 뒷면을 표시한다.

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滿漢演義》는 흑룡강, 길림, 봉천 세 지역이 조선의 옛 영토이고, 요나라와 금나라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옛 고대 국가인 부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즉, 중국 북방지역이 고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사실을 피력한 것이다. 번역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지리 지식이 원전과 다른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일부분이지만 번역자 본인의 역사관을 부여하여 번역하였는데, 과거에 강성한 힘을 가졌던 옛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나라 잃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한 장치로 판단된다.

### 3. 번역의 차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글번역본 《신주광복지연의》의 번역 양상은 일부 오역이 있긴 하지만 축약역 위주의 직역이 많으며 후반부는 생략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띤다.<sup>13)</sup> 반면에 《滿漢演義》는 전체적으로 축약된 형태이다.

축약의 형태는 서사 전개를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주고받는 여러 개의 대화들을 한 두 개 정도로 축약하거나 묘사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함축시키는 등의 장치들이 많지만, 번역자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새로 쓴 형태의 축약도 보이는데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 화설, 지나 전폭의 대세 북방의 세력이 강대흐즉 남방이 편안치 못흐고 남방의 괴쉬 도히 도라온즉 북방이 쇠약흐은 네로부터 그러흐니 한나라의 흥노와 당나라의 돌궐과 송나라의 글난과 녀진의 일로 볼진디 왕탐에 쇼연흐지라. 《滿漢演義 1a》

⑤ 화설 융적이 범처럼 보기는 예로부터 임의 그러흐고 중화에 노린니와 비린닌은 이제 이르러 심흉이 되니 텅기 변방이 것칠고 어두어 스랍과

13) 이재홍, 〈한글번역필사본 《수상신주광복지연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집》 42,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236~242쪽 참조.

김성이 석기여 스러 나라 제도가 업고 혼 모퉁이에 무리로 모뉘여 일흠을 부락이라 호고 락 부락에 두목 혼 사람을 추장이라 호는넋 도모지 성품이 효와 경 갖타여 [효는 아비 잡으먹는 김성이요 경은 어미 잡으먹는 김성이라]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니 풍속이 중국과 갓디 아니키는 괴이홀 게 업거니와 다만 저 오랑키 결네가 그 흉악함을 밋고 잇씩금 우리 너란을 타 크게 들어와 침범하니 우리 결네가 처 멀호지 못호고 드뉘여 싱키는 빅 되니 력디로 그 러호지라. 《신주광복지연의 1:1~2》

[6] 話說戎狄虎視，自昔已然。華夏膾腥，於今爲烈。自古道，塞外窮荒草昧，人獸雜居，并無國家制度，不過群聚一方，名爲部落。每部落頭目一人，名爲酋長。都生得秉性梟獍，善於騎射。這是各處風俗不同，無怪其然。但恨這般番族，恃其凶惡，往往乘我內難，大舉入犯。我族剿除不滅，遂爲所吞，此歷代皆然，不必細說。《神州光復志演義 第一回》

위 인용 단락은 중국 역대 왕조의 성쇠와 이민족이 침입해 온 힘의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신주광복지연의》는 원전 《神州光復志演義》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번역하고 있다. 때문에 원전을 직접 살펴보거나 역사적 지식이 있지 않는 한 한글번역본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滿漢演義》는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정확히 전달되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단순히 원전의 내용을 일부 빼는 형태의 축약이 아니라 번역자가 새롭게 글쓰기 하여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의 의식수준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번역한 예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신주광복지연의》가 《滿漢演義》보다 축약된 단락은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7] 이제 북경이 그 승전함을 듯고 문무 공을 속여 벼슬을 더홀식 리부에서 이뵈여 인을 올니니 흥현이 본즉 데일명이 원송환이라. 대노 왈, “송환이 금주를 구원치 아니호엿거늘 엿지 론공호리오.” 호고 좌우를 명호야 리부에 가 사실하라 혼즉 상서 곽유훼(霍維華) 급히 와 고두 왈, “청컨대 의부는 식노호쇼셔. 흥현 왈, “네게 무엇이 상관 되노뇨?” 유훼 왈, “부중

의남으로써 드리랴 헝기로 의남이 감히 참람치 못하고 승황에게 스양했었  
 느이다.” 충현 왈, “내 네 심수를 아노라. 네 전일에 성방명약을 황제의 드  
 린즉 황제 맞이 들다 헝샤 만히 지어헝시고 인헝야 좋기를 어든 연유로 승  
 환이 너를 탄핵헝가 두리느냐. 내 임의 너를 칙헝였스니 무엇술 두려헝리  
 오.” 헝고 곳 녀각을 명헝야 왈, “승환이 군스를 가지고 구원치 아니헝였스  
 니 엄히 신칙하라.” 죠셔를 느리게 헝니 승환이 대분헝야 곳 스적함애 왕  
 지신으로 그 벼슬을 디신헝니라. 《滿漢演義 48ab》

[8] 이석 북경에서 녀·금 승첩함을 듯고 문무 각관의 공을 의논헝야 벼  
 슬을 더할 시 니부에서 이벽여 인 명칙을 울너네티 제일 3 흠이 승환이라.  
 충현이 보고 디로 왈, “승환이 금주를 구원치 으니헝였스니 엇디 가히 공  
 을 의논헝깃느냐?” 헝고 좌우를 명헝야 니부에 이르러 스문헝니 상셔 곽유  
 화 급히 충현에게 느으가 머리를 두다려 굿치지 으니헝여 왈, “칭컨디 의  
 부는 노여움을 쉬이소서.” 충현이 왈, “네게 관계업다.” ▼헝고 곳 녀각에  
 명헝야 성지를 빙자하여 승환이 군스를 끼고 구원치 으니헝다 헝야 엄헝게  
 물니치니 승환이 성지를 접헝고 크게 분넝여 다만 파직헝기를 구헝니 도정  
 이 왕지신을 명헝야 그 벼슬을 디신헝시다. 《신주광복지연의 1:97~98》

[9] 此時京中喧傳寧錦大勝, 文武冒功加官. 吏部呈進名冊, 共二百餘人. 忠  
 賢視之, 第一名是袁崇煥, 大怒曰: “崇煥不救錦州, 可論功耶?” 命左右到吏  
 部查問. 尚書霍維華急詣忠賢, 叩頭不止曰: “請義父息怒.” 忠賢曰, “與爾何  
 干, 且站起.” 維華起立曰: “部中欲將義男殺入, 義男不敢冒濫, 是以讓與崇  
 煥.” 忠賢曰: “我知汝心思, 汝日日進仙方靈露獻帝, 帝道入口極甘, 飲之不  
 厭, 因此得病體腫, 汝恐崇煥劾耶, 吾已責汝罷了, 何用懼他. 立命內閣擬旨  
 曰: ‘袁崇煥用兵不救, 嚴可申斥.’” 崇煥接旨大憤, 只得求罷. 朝廷命王之臣  
 代其職. 《神州光復志演義 第四回》

밀줄친 부분에서 보이듯 등장인물 유화의 대사 부분이 《滿漢演義》에  
 서는 그대로 다 번역되었지만 《신주광복지연의》에서는 빠진 모습을 띤  
 다. 이밖에도 《滿漢演義》는 개화기 때의 단어가 간간이 나타나는데 중  
 국을 가리키는 단어인 ‘지나(支那)’의 사용이 확인된다. 또한 원전의 ‘募’자  
 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모집헝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신주광복지연의》  
 에서는 ‘모오다’, ‘소모(召募)헝다’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與’에 대해서

도 《신주광복지연의》는 일관되게 ‘~로 더불어’라 하여 의고적인 번역투를 고수하고 있는데, 《滿漢演義》에서는 ‘~과 흡씨’ 또는 ‘~과’, ‘~와’로만 번역하고 있어 현대적 번역문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 Ⅳ. 《神州光復志演義》의 국내 유입과 번역의 의미

##### 1. 일제강점기 책꽂이 취급과 유통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문화말살 정책을 실시하여 항일 애국적 성향을 띠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문화 활동까지도 탄압하였다. 출판물 역시 조선 민족의 역사, 지리, 교과서, 외국의 독립투쟁사나 망국사 등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은 모두 수입, 발행, 공유 금지 대상이었다. 탄압, 금지되었던 서적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一千九百十年 日本이 韓國을 合併하고 모든 結社와 言論機關을 撲滅한 後에는 圖書의 撲滅에 着手하니 只今 手中에 在한 記錄을 據한 初等 本國歷史, 初等本國地誌, 中等本國歷史, 中等本國地誌, 幼年必讀, 東國史略, 女子國文讀本, 乙支文德傳, 李舜臣, 國民須知, 大韓地誌, 大韓歷史, 崔勉菴集, 昭義新編, 陽明先生實記, 飲冰室文集, 中國魂自由書, 越南亡國史, **神州光復誌**, 美國獨立史, 瑞士建國誌, 意大利獨立史, 法國革命史, 波蘭亡國史, 埃及近世史, 華盛頓傳, 意大利三傑傳, 喝蘇士傳, 大彼得傳, 夢拜金大祖, 夢見諸葛亮, 禽獸會議錄, 演說法方, 笑談, 朝鮮論, 自由鍾, 萬歲歷(曆), 精神教育, 英雄淚 國史悲, 血淚, 青年立志編 等 凡三十餘種 二十餘萬部

此等書籍은 書肆뿐더러 個人所藏도 搜索한다.

或 所有者가 有하면 排日主義者라 呼야 此를 逼迫한다.<sup>14)</sup>

14) 《한일관계사료집》(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7), 史料集第二, 六, 集會及結社 言論出版의 禁止, 6. 圖書의 焚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참조.

《한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간행한 책이다. 《신주광복지연의》는 《월남망국사》, 《미국독립사》, 《서사건국지》, 《이태리독립사》, 《프랑스혁명사》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검열을 강화하여 책 제목에 기록된 ‘光復’, ‘自由’, ‘革命’, ‘獨立’ 등 단어의 하나하나의 표현까지도 문제 삼았고, 이런 책들은 무조건 압수·분서하였고 소기하였다. 서점에서의 유통 제재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본까지도 수색하였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일주의자로 분류하여 탄압하였다. 한낱 서적의 폐기를 넘어선 조선 민족의 자주독립사상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그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기 위한 통제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책을 구독하였던 사람들은 제법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十五日初九日丙申水, 陰雪, 中州杭州人王雪庵所著神州光復志演義十六卷, 新刊廣布, 購一帙覽之蓋述近年政變也. <《續陰晴史》卷十五, 癸丑一月><sup>15)</sup>

《續陰晴史》는 조선 말기 문신이자 개화파인 金允植(1835~1922)<sup>16)</sup>이 쓴 일기이다. 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무려 35년간 쓴 것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역사자료이다. 김윤식은 癸丑年(1913) 1월에 《神州光復志演義》를 구매하여 읽었다. 원전이 1912년 9월에 출판되었으므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15) 《續陰晴史》 下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16)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 조선 말기 개화파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고종 11년(1873)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암행어사, 영선사(領選使), 이조참판, 외무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용직(李容植)과 함께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저항하였다. 이 일로 인해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을 모은 『운양집(雲養集)』, 영선사로 선발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일정과 활동을 기록한 《陰晴史》, 1887년에서 1921년까지 쓴 일기인 《續陰晴史》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조.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체 120회 가운데 60%이상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제를 창립하기 위해 일어난 신해혁명 전후의 여러 사건과 활동 내용들이므로 김윤식이 내린 근대 정변을 기술한 서적이란 정의와도 부합한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던 애국지사들도 구독하였다.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申翼熙, 1894~1956)가 거액을 들여 《수상신주 광복지연의》 구입하여 트렁크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는 일화도 있다.<sup>17)</sup>

그런가 하면, 조선말기의 유학자 이병곤(李炳畵, 1882~1948)이 쓴 《退修齋日記》에도 이 서명이 등장한다.

八日 月曜 乙巳 陰 三月 十九日 (天氣) 晴佳如昨日。

朝後, 閒坐無聊, 謙叟又請同出遊觀, 余與孟謙隨之, 同往觀景福宮院。至宮牆東, 自建春門入, 有人禁止, 使之待明日來, 蓋於景福宮內, 起一石造屋, 設博覽館, 而是日休館故也。卽由門還出, 歸路, 至翰南書林, 購三種書 [神州光復志·普法戰爭記·清史綱要, 皆撰史時緊切參考書籍也], 而歸館, 日纔午矣。〈〈退修齋日記〉第十三卷, 己卯年(1939년) 五月〉<sup>18)</sup>

퇴수재는 이병곤의 호이고, 1906년~1948년까지 약 42년간 쓴 일기이다. 이병곤의 고향과 거주지는 밀양이다. 위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병곤은 1939년 5월 상경해 있었고 경복궁을 방문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돌아가는 길에 한남서림에 들러 역사서 편찬 시에 요긴하게 참고할 만한 도서 《신주광복지》, 《프로이센프랑스전쟁기》, 《청사강요》 3종을 구매한다. 현재 국내에 여러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기록보다 훨씬 많은 서적들이 유입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

17) 신익희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10살 전후에 이미 《사서삼경》을 떼었고, 7,8살 때에는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수호전》를 읽었으며 9살 때는 서울에서 길가에 淸인이 《삼국지연의》를 떠듬떠듬 읽는 것을 보고 답답한 나머지 대신 읽어주고 번역해서 들려주었다고 회고하였다.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 해공 신익희》, 도서출판 연봉, 1996, 29~30쪽.

18) 《退修齋日記》下(한국사료총서 제51집), <http://db.history.go.kr> 참조.

된다. 위의 기록들에 근거하면 한문 식자층인 유학자나 독립운동가 등이 독자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일제강점기 역사소설 번역의 의미

‘번역’은 기점 언어와 목표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며 목표 문화의 자국 문화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sup>19)</sup>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국면했던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태로웠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패배와 그로 인해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등 왕조가 몰락해가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갑신정변(1884), 청일전쟁, 아관파천 등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열강들의 조선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이다. 결과적으로 1894~1910년간 한국은 엄중한 국가의 위기를 체감하고 자주적인 국권 회복을 목표로 내세워 적극적인 애국계몽운동을 펼친다. 역사·전기소설의 번역은 정치와 민족의식에 깊이 관련되어<sup>20)</sup> 민중들에게 뚜렷한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구국자강을 위한 애국계몽 문학운동의 일환이었다. 난국의 상황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애국계몽과 국권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역사·전기소설을 적극 번역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神州光復志演義》는 주권을 빼앗긴 시대적 특수성과 맞물려 정치적·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여 역사 지식의 전달에서 나아가 타국의 민족적인 투쟁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민족의 자주독립 의식과 저항 의식을 촉발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역사 전기소설은 번역, 변안, 창작소설 할 것 없이 1910년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져 새롭게 연재되거나 출판되지 못하게 되는데<sup>21)</sup> 이는 일

19)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67쪽.

20)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124~125쪽.

21) 김영민, 〈역사·전기소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본의 서적 출판·판매에 대한 제재조치 때문이다. 그런데 《神州光復志演義》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13년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서는 한글로 번역된 서적도 존재한다.

더욱이 근대 번역물의 대부분이 단편이나 중편인데 반해 《神州光復志演義》는 무려 120회에 달하는 대하장편이다. 어림짐작하여도 고전소설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등의 분량과도 맞먹는다.

위에서 확인한 바처럼 분소(焚燒)·폐기시켜야 하는 요주의 서적으로 분류되었던 《神州光復志演義》가 국내에 유입 유통되는 1단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점언어인 중국어 장편 소설이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독자의 층위와 인구의 확대라는 포괄적이고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필사본의 번역에 머물러 출판의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번역자는 조선 민중들이 처한 침통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動因의 하나로 《神州光復志演義》를 선정하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는 ‘光復’이며 광복을 찬양하는 것을 주지로 삼는다.<sup>22)</sup> 청나라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여러 혁명 활동과 역사적 사건, 영웅적 지도자 쑨원(孫文)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의 활약상을 상세하게 적어 1912년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독립 과정을 읽게 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의 상공황을 인지하고 투영시켜 노력하면 독립할 수 있다는 광복을 기원하는 번역자의 특수한 목적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를 전부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추론이다.

출판, 2005, 45쪽.

22) 〈例言〉“是編冠其名曰〈光復志〉, 以表揚光復偉業爲宗旨, 凡無關本旨者, 概不闌入. 聽濤館主人 著, 鍾林斌·潘常靜 校點, 《神州光復志演義》上(中國近代珍稀本小說19), 中國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7.

## V. 결론

중국 근대역사소설 《神州光復志演義》(120회)는 1912년 중화민국 탄생을 기념하여 만주족 누르하치에 의한 명의 멸망과 청의 건국, 그리고 청의 멸망과 신해혁명을 거쳐 한족의 중화민국 수립까지 약 300년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중국근대역사소설 《神州光復志演義》의 새로운 한글번역본 《滿漢演義》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새 자료 《滿漢演義》는 비록 1질의 결본이지만 중국 원전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주광복지연의》에 없는 번역자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번역자는 서문에 국권을 상실한 비통한 분위기를 중국이 겪은 굴곡 많은 투쟁 이야기인 《神州光復志演義》에 대비시켜 조선 국민의 민족애를 고취시키고 계몽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번역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작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번역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광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神州光復志演義》의 서명에서 보이듯 타국 민족의 투쟁사를 보여줌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References>

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2. Guo Chang-hai, "Literature of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hang Chun Teachers*

- College* Vol.21 No2, (2002).
3. Han Gi-young, *Modern Korean Language, Modern Media, Modern Literature- The Relatedness among Language and Medi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06.
  4. Hou Yun-hua, “Genre characteristics of Modern History Novels”, *Journal of Tianzhong* Vol.31 No3, (2016).
  5. Jang Mi-young, *A Study on the Biographical Novels in the Korean Enlightenment Perio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87.
  6. Jung Sun-kyung, “A Study on Yang Kun Sik's Translation and Acceptance of Chinese Classic Novels in Modern Times”,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73, (2012).
  7. Kang Hyun-cho, “A Study on the Aspect of the Acceptance of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in Korean Early Modern Adapted Novels”,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Vol.46, (2012).
  8. Kang Hyun-cho, “A Study on the Translation or the Adaption as a formative motivation of Korean Modern Novels”,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Vol.26, (2012).
  9. Kim Byung-chul,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Translated Literature*, Seoul: Eulyoo Munwhasa, 1975.
  10. Kim Young-min, *A Study on the process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narratives*, Seoul: Somyungbooks, 2005.
  11.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http://db.history.go.kr/>
  12. Lee Jae-hong, “A Study on the Translated Xiuxiang Shenzhou guangfuzhi”,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2, (2007).
  13. Li Xiao, “The Romances of Chinese Modern History in Late Qing

- Dynasty and Early Years of the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Suzhou College* Vol.21 No1, (2006).
14. Nam Min-su,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ory of Fi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39, (2002).
  15. Niu Lin-jie·Liu Hui-ying, “A Study on Chinese mordern chapter-titled novel Hero's tears”,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Vol.30, (2010).
  16. Oh Soon Bang, “Changes in Shanghai and Chinese Modern Novels”,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24, (2003).
  17. Oh Soon-Bang, “Interactive Translation Study of 20th Century Chinese and Korean Novels”,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Literature and Translation* Vol.9, (2002).
  18. Park Jae-yeon·Lee Jae-hong·Lee Sang-deok, *Susang Sinju Guang-bokjiyeonyi*, Seoul: Hakgobang, 2007
  19. Park Jin-young, *The Age of Translation and Adaption*, Seoul: Somyungbooks, 2011.
  20. Park Jong-hong, “Three Apperances of Historical novels in Japanese colonial times”, *Urimalgeu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56, (2012).
  21. Rhyu Chang-jin, “A Study on ChaoXian-TongShi(WangGuoYing)”,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29, (2004).
  22. Tingtaoguan Zhuren, *Shenzhou Guangfuzhi Yanyi*, Shenyang: Chunfeng Wenye Chubanshe, 1997.
  23. Unknown, *Manhanyanyi*, Hangul Manuscript.
  24. Unknown, *Susang-Sinju-Guangbok-ji-yeonyi*, Hangul Manuscript,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25. Um Young-Uk·Yang Choong-Youl·Jeong Young-ho, *A Study on*

*Chinese Modern Literary Thought*,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26. Wang Xue-an, 《Xiuxiang Shenzhou-Guangfuzhi-Yanyi》, Shanghai Shenzhou Tushuju, 1912.
27. Yan Lian-jun, Ethnic issues in Late Qing Dynasty and Early Years of the Republic of China Novels, *The Journal of Literary Contention* No.8, (2016).
28. Zhang Nai-yu, “A Comparative Study of Modern Transform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Novels-Focusing on 1902~1919”,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Vol.62, (2016).

### < 참고문헌 >

1.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http://encykorea.aks.ac.kr/>
2. 郭長海, 〈中華民國成立時的文學〉, 《長春師範學院學報》 第21卷 第2期, 長春師範大學, 2002.
3. 한기영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4. 侯運華, 〈論近代歷史小說的流派特征〉, 《天中學刊》 第31卷 第3期, 黃淮學院, 2016.
5. 장미영, 《개화기의 역사전기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전북대 국문과, 1987.
6. 정선경, 〈근대시기 양건식의 중국고전소설 번역 및 수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73,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7. 강현조, 〈한국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중국·일본문학 수용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8. 강현조,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 《한국근대문

- 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9. 김병철, 《한국 근대번역 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75.
  10.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서울, 소명출판, 2005.
  1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2. 이재홍, 〈한글번역필사본 《수상신주광복지연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집》 42, 중국어문학회, 2007.
  13. 李瀟, 〈清末民初의中國近代史演義初探〉, 《宿州學院學報》 第21卷 1期, 宿州學院, 2006.
  14. 남민수,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에 미친 중국 근대 소설론의 영향〉, 《중국어문학》 39, 영남중국어문학회, 2002.
  15. 牛林杰·劉惠瑩, 〈중국 근대 章回小說 〈英雄淚〉에 대한 고찰〉,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6. 오순방, 〈上海와 中國近代小說의 변화〉, 《중국학연구》 24, 중국학연구회, 2003.
  17. 오순방, 〈20세기 中韓小說의 雙方向 翻譯 試論〉, 《중국어문논역공간》 9, 중국어문논역학회, 2002.
  18. 박재연·이재홍·이상덕 교주, 《수상신주광복지연의》(上下), 서울, 학고방, 2007
  19. 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서울, 소명출판, 2011.
  20. 박종홍, 〈일제강점기 역사소설의 세 양상〉,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21. 류창진, 〈《朝鮮痛史(亡國影)》小考〉, 《중국인문과학》 29, 중국인문학회, 2004.
  22. 聽濤館主人 著, 鍾林斌·潘常靜 校點, 《神州光復志演義》上·下(中國近代珍稀本小說19), 春風文藝出版社, 1997.
  23. 《滿漢演義》, 1책, 한글필사본, 필자 소장
  24. 《神州光復志演義》, 30책, 한글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5. 엄영옥·양충렬·정영호, 《중국근대문학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

- 부, 2009.
26. 王雪菴 著, 《繡像神州光復志演義》, 15권 16책, 石印本, 上海神州圖書局,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27. 顏煉軍, 〈清末民初小說中的民族問題〉, 《文藝爭鳴》 08期, 吉林省文学艺术界联合会, 2016.
28. 張乃禹, 〈한국과 중국 소설의 근대적 전환 비교 연구 -1902~1919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Abstract >

The Chinese modern historical novel *Shenzhou-Guang-Fu-Zhi- Yan-Yi* 神州光復志演義, comprising 120 episodes, was published to celebr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中華民國) in 1912. This novel encompasses the historical events that happened during the 300 years of the period, from the Manchu leader Nurhaci's conquest of the Ming dynasty(明) and the birth of the Qing dynasty(清) to the decline of the Qing and Xinhai Revolution(辛亥革命)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by the Han Chinese(漢族).

This paper introduces a newly discover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Shenzhou-Guang-Fu-Zhi- Yan-Yi*, titled *Man-Han-Yan-Yi* 滿漢演義, and compares it to the previous Korean translation of *Shenzhou-Guang-Fu-Zhi- Yan-Yi*, currently archiv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asses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iterary works.

*Man-Han-Yan-Yi*, despite being an incomplete single set of books, contains a translator's foreword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 Chinese novel or Korean translation of it,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foreword reflects the intention of the translator to heighten the ethnic pride of the Koreans by contrasting the mournful atmosphere of the country that lost its sovereignty to *Shenzhou-Guang-Fu-Zhi-Yan-Yi's* narrative of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Furthermore, since *Shenzhou-Guang-Fu-Zhi-Yan-Yi* was banned by the Japanese colonialist, the translator appears to have tried to avoid using the word 光復(restoration of independence); instead he has used 滿(Man) and 漢(Han) to show the conflict and war between the Manchurians(滿洲族) and the Han(漢族) in the story.

In conclusion, the novel seems to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 and translated into Korean to heighten and bolster the spirit of independence among Koreans by telling a story of nearby China's struggle for independence.

**Key Words :** 神州光復志演義(*Shenzhou-Guang-Fu-Zhi-Yan-Yi*), 滿漢演義(*Man-Han-Yan-Yi*), 민족 투쟁(Ethnic struggle), 역사소설(Historical novel), 광복(Independence), 한국어 번역(Korean translation)

